

고등학생 사회참가활동의 실태와 과제

김 중 대(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 론

청소년은 2세대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이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야 그 국가는 튼튼하고 굳건한 터전을 이루고 발전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그로 인한 의식의 변화로 청소년들은 그 시기에 적절한 자아를 발전시키고 대인관계능력 및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오늘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원인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원화에 의해 학교 교육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전락되어 청소년들의 자아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이기적 성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김동배 외, 1996 : 35), 그들의 사회성 개발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나 태도의 배양이며, 이 같은 능력과 태도의 습득은 무엇보다 청소년의 자발적인 사회참가 활동을 통하여 체득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반 체험중심의 활동이 바로 사회참가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 개개인의 생활에 관계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시민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사회건설에 참가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 7). 즉 자발적 활동으로서 사회참가활동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일상생활의 지식과 행동양식 그리고 가치에 대한 학습의 기회이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여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고 자치적 활동을 통하여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사회성의 함양에 기여한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은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건전한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는 사회를 보는 관점은 확대되지만, 급변하는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의 추세에서 오는 의식 및 생활양식의 복잡성과 불일치, 혼란으로 나름대로 규범을

확립하기가 힘이 들며, 이 시기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이 이러한 자극에 상승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국 내면적 자아의 충실한 성장을 도모하는 대신 일상적인 외부 세계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일에만 급급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게 된다(장인협 외, 1995 : 233). 따라서 고등학생 시기는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사회성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적절한 사회참가활동은 개인적 사회적 발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특히 고등학생들의 사회참여활동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참가활동의 의미를 고등학교 교육에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고등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참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내의 터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와 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사회참가활동의 개념과 특성

청소년 사회참가활동이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하는 활동으로 활동의 목표나 과정은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발상에서 기초한 개념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사회참가활동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층인 청소년의 고유 영역 활동, 즉 학교, 직장 등의 다양한 근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 근로, 복무 그리고 임의영역 활동으로서, 가정이나 거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면, 식사, 통학, 신변잡일 등을 제외한 심신단련, 자질향상, 취미개발, 정서함양, 사회봉사 등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모든 활동(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 39)으로 정의한다. 즉, 청소년이 학업·작업 이외에 하는 활동 중에서 청소년이 자주적으로 그룹·씨클·단체 등에 참가해서 하는 활동으로, 인간관계를 배우거나 사회적·공공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본인의 성장에는 물론 사회에도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 활동을 말한다. 그 내용은 취미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에서부터 지역활동

이나 사회단체 참가활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있다.

청소년 사회참가활동의 특성으로는 참가의 임의성, 자발적 흥미나 관심, 직접경험, 집단성, 유연성, 다양성 등을 들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 16~17). 즉 청소년 사회참가활동은 청소년이 스스로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자기 생활에 관계되는 것 혹은 배워보고 싶은 것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집단 내에서의 토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정신적인 성장을 촉진시켜 사회적 태도나 실천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도록 도와주게 된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 7). 왜냐하면 자아의 형성에는 과정으로서 역할행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병재, 1998 : 269).

2. 고등학생 사회참가활동의 기대효과

청소년의 시기중 고등학생기는 타시기에 비해 자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며 성인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절의 사회참가활동은 중학생기의 개인적 미숙함에서 벗어나 타인들로부터 그 행위를 어느 정도 인정 받을 수 있는 시기이며 동시에 사회적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시기여서 좀더 자유롭게 사회참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고등학생 시절의 사회참가활동은 사회적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개인적 성숙을 꾀할 수 있는, 즉 사회참가활동을 가장 활발히 할 수 있는 시기이며 활동의 효과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 시기에 사회참가활동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권해조, 1987: 28~ 29).

첫째, 사회참가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과 협력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자기발전과 성숙에 기반이 되는 사회성을 길러주고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다.

둘째, 취미향상을 도모하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자아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이미 가진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다.

넷째,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을 지닌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잠재적인 지도력을 개발하여 학습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여섯째,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시킨다.

일곱째,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행위의 체험을 통해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건전한 이탈행동을 예방한다.

Ⅲ. 조사대상과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대상집단으로 대구 시내 고등학교 각 4개교(남녀 각각 2개교)를 임의로 선전하고 선정된 학교의 한 학급을 다시 임의로 선정하여 그 학급 소속학생중에 남자 141명, 여자 1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의 방법, 내용 및 분석방법

조사의 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방문하여 조사표를 배부하고, 대상자가 응답한 조사표를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표 내용은 (1)개인적 환경과 태도, (2)사회와 개인의 관계, (3)사회참가활동의 참여도에 관한 견해등이다. 자료분석은 SPSS 7.5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조사결의 분석 및 고찰

1. 개인적 환경과 태도

1) 가족관계

응답자 중 형제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은 약 70%이다. 즉 형제가 없거나 따로 떨어져 거주하는 관계로 형제가 나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은 49%에 이르나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15%에 불과하다.<표Ⅳ-1>참조.

<표IV-1> 동거하는 가족 및 조부모와의 동거경향

구 분		빈 도	비 율(%)
함께 사는 가족	부 모	286	96.6
	형 제	206	69.6
	조부모	43	14.5
	기타가족	5	1.7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	있 다	144	48.6
	없 다	152	50.7

현재 고등학생인 응답자들이 중학생이었을 때 부모와 어느 정도 대화했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표IV-2>에서와 같이 학교 공부나 성적에 대해 어머니와 대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잘 말한다=1, 때때로 말한다=2, 그다지 말하지 않는다=3, 전혀 말하지 않는다=4점으로 점수를 준 경우 평균 점수 비교). 학교 공부나 성적에 대해서 주로 어머니와 대화하며 아버지와의 대화정도는 대단히 낮게 나타났다. 그 외 친구관계나 취미·놀이, 장래 희망에 대해서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쪽과의 대화정도가 높았으며 다만 흥미있는 사회문제에 대하여는 아버지와의 대화정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학생들의 부모와의 대화 정도는 영역별로 대화의 상대가 다르고, 특히 아버지와의 대화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표IV-2> 부모와의 대화정도

구 분	대상	잘 말한다.		때때로 말한다.		그다지 말하지 않는다.		전혀 말하지 않는다.		계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교공부나 성적	아버지	45	15.4	112	38.2	105	35.8	31	10.6	293	100.0	2.42
	어머니	117	39.7	122	41.4	48	16.3	8	2.7	295	100.0	1.82
친구관계	아버지	33	11.3	88	30.0	118	40.3	54	18.4	293	100.0	2.66
	어머니	94	31.9	112	38.0	70	23.7	19	6.4	295	100.0	2.05
취미나 놀이	아버지	50	17.1	68	23.3	110	37.7	64	21.9	292	100.0	2.64
	어머니	85	28.8	92	31.2	86	29.2	32	10.8	295	100.0	2.22
장래 희망	아버지	62	21.2	105	35.8	86	29.4	40	13.7	293	100.0	2.35
	어머니	93	31.7	113	38.6	64	21.8	23	7.8	293	100.0	2.06
흥미 있는 사회문제	아버지	70	23.9	83	28.3	86	29.4	54	18.4	293	100.0	2.42
	어머니	51	17.3	96	32.7	104	35.4	43	14.6	294	100.0	2.47

부모와의 사이에서 의견대립이 생겼을 경우 <표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의견의 절충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화하는 경우는 적어서 대화 중 부모의 의견에 따르거나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경우와 그 비율이 비슷하였다(27.3%, 27.8%, 27.8%). 그리고 부모의 의견에 억지로 따르거나(8.0%),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경우(6.4%)도 더러 있었다.

<표IV-4> 부모와의 의견 대립에 대한 결과

구 분	빈 도	비 율(%)
서로 의견이 맞을 때까지 대화했다.	51	27.3
대화하여 부모의 의견에 따랐다.	52	27.8
대화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했다.	52	27.8
대화하지 않고 부모의 의견에 억지로 따랐다.	15	8.0
대화가 안되어 내 의견을 관철했다.	12	6.4
기 타	5	2.7
계	296	100.0

가족이나 친구와의 인간관계 그리고 학교공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표IV-4>에서와 같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는 다소 만족하고 있지만, 일이나 공부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부나 일이 학생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잘 되고 있다=1,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2, 그다지 잘 되지 않는다=3, 잘 되지 않고 있다=4점으로 평가하여 평균점수 계산 비교).

<표 IV-4> 인간관계나 학교공부에 대한 만족도

구 분	잘되고 있다.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		그다지 잘 되지 않는다.		잘되지 않고 있다.		계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족과의 관계	153	51.7	106	35.8	28	9.5	9	3.0	296	100.0	1.64
친구와의 사귀	129	43.6	140	47.3	21	7.1	6	2.0	296	100.0	1.68
일이나 공부	14	4.7	96	32.4	139	47.0	46	15.5	296	100.0	2.75

3.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사회에 대한 관심 및 태도

<표IV-5> 최근의 뉴스에 대한 관심도

구 분	빈 도	비 율(%)
자연식품이나 유기농업	22	7.4
에너지 문제	27	9.1
외국의 분쟁	95	32.1
경제적인 문제	152	51.4
자연환경 파괴 문제	101	34.1
고령자나 장애자의 복지 문제	21	7.1
프로야구나 프로 축구의 승패	130	43.9
음악이나 연극 영화	155	52.4
유행, 패션	128	43.2
남녀간의 성 문제	100	33.8
범죄 사건	123	41.6
대학입시 문제	195	65.9
정치 현안	67	22.6
기타	11	3.7

사회에 대한 관심 및 태도는 <표IV-5>과 같이, 최근의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은 항목은 당연히 대학입시 문제(65.9%)였다. 그 다음으로 관심이 많은 항목은 경제적인 문제(51.4%), 음악이나 연극 영화와 같은 오락(52.4%)이었으며, 그 외 스포츠, 패션, 성문제, 범죄사건 등에 대해 비교적 관심이 많았다. 사회적으로 주요한 쟁점인 정치현안(22.6%), 에너지 문제(9.1%)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으며, 복지문제(7.1%), 유기농업 등(7.4%)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 공동체 활동에는 관심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IV-6> 관심있는 일이나 취미에 대한 정보 수집 매체(3가지지적)

구 분	빈 도	비 율(%)
학교의 수업시간	40	13.5
신문	127	42.9
잡지	133	44.9
홍보물이나 팸플릿	56	18.9
TV, 라디오	235	79.4
친구를 통해서	188	63.5
가족과의 대화	23	7.8
PC통신	16	5.4
기타	12	4.1
별로 없다.	10	3.4

관심있는 일이나 취미에 대한 정보는<표IV-7>와 같이, TV, 라디오(79.4%), 친구(63.5%)가 가장 주요한 매체 역할을 하고 있었고, 신문, 잡지 등이 다음으로 주요한 정보입수 통로였으며. 학교 수업시간이나(13.5%) 홍보물(18.9%), 가족(7.8%)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활동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우리 사회에 대해 <표 IV-7>에서와 같이, 고등학생들은 비교적 규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동이나 규범의 준수, 공평함에 대해 높은 동의를 하고 있어(전국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1,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2,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3,

<표 IV-7>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의식

구 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어느정도 그렇게 생각한다.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계		평균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한사람 한사람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153	51.7	115	38.9	22	7.4	6	2.0	296	100.0	1.60
주위가 풍요해져야 비로소 개인도 풍요해진다.	67	22.6	121	4.9	83	28.0	25	8.4	296	100.0	2.22
모두가 결정한 규범은 지켜야 한다.	162	54.7	116	39.2	15	5.1	3	1.0	296	100.0	1.52
공평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24	41.9	130	43.9	38	12.8	4	1.4	296	100.0	1.74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이 다소 참아야 한다.	62	20.9	154	52.0	58	19.6	22	7.4	296	100.0	2.14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4점으로 평가한 평균 점수 비교) 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평등한 보상에 대한 요구의식은 강하게 나타나지만 전체를 위한 개인의 양보나 헌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낮아 공동체 의식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항목 중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주위가 풍요해야 비로소 개인도 풍요해진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이 다소 참아야 한다”를 공동체 의식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사회참가 활동 참여 회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표IV-8>에서와 같이 가장 자주 활동한(주 1-2회) 응답자의 공동체 의식이 가장 높고, 가장 활동의 수가 적은 응답자의 공동체 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p<.05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IV-8> 사회활동 참가회수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차이

사회활동참가회수	공동체 의식			F값	P값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주 1-2회	36	1.78	.52	2.974	.032
월 1-2회	41	2.02	.66		
연 1-2회	71	1.90	.44		
지금까지 1-2회	111	2.06	.59		
계	259	1.97			

4. 사회참가활동 참여 실태와 태도

1) 일반적 사회활동의 실태 및 태도

고등학생들이 사회참가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표 IV-9>과 같이 학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자연보호, 청소미화활동, 장애인 자원활동 등이 주된 활동이었고, 그 외에는 우표수집이나 전통문화 참가 등 개인적인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다. 참가한 계기는<표IV-10>에서와 같이 자발적 의사가 가장 많았으나(32.2%)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활동도 많아(25.8%) 활동의 자발성이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사회참가활동을 처음 시작한 시기를 보면 대부분 교육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한 1995년부터가 대부분이었다.

<표IV-9> 사회참가활동의 참가 경험

구 분	빈 도	비 율(%)
어린이들의 활동 뒷바라지나 지도	53	17.9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교류	86	29.1
고령자와의 교류	35	11.8
어린이의 스포츠, 문화활동의 지원이나 지도	13	4.4
집주위의 청소나 미화 활동	90	30.4
자연보호나 재활용 등 환경에 관한 활동	130	43.9
모금활동	72	24.3
헌혈, 안구 은행 등에의 등록	48	16.2
우표 수집	93	31.4
전통문화나 축제 등의 참가	86	29.1

<표 IV-10> 사회참가활동의 참여 계기

구 분	빈 도	비 율(%)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84	32.3
가족이나 친척이 권유해서	17	6.5
친구나 친지에게 권유되어	52	20.0
학교에서 기회가 주어져서	67	25.8
활동에 관한 강습회나 모임에 참가하여	17	6.5
TV, 신문, 포스터 등을 보고	8	3.1
기타	15	5.8
계	260	100.0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이 다수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러한 환경은 사회참가활동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까운 이들의 수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사회참가활동에 참여하는 영역의 수(사회참가활동의 참가 경험 영역의 종류 합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참여자의 수가 많을수록 참여하는 사회참가활동영역의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IV-11>참조.

<표IV-11> 주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의 수에 따른 사회참가활동 참여 영역의 수

자원봉사하는 사람의 수	사회참가활동 참여 영역의 수			F값	P값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없다	64	1.73	1.79	9.667	.000
1명	140	2.14	1.38		
2명	50	2.86	1.53		
3명	27	3.25	1.53		
4명	10	4.20	2.30		
5명	2	2.50	2.12		
6명이상	2	7.00	4.24		
계	295	2.38	1.70		

사회참가 동의 참여 빈도는<표IV-12>에서와 같이 대단히 저조해서 월 1-2회 이상 하는 응답자는 30%도 채 되지 않았으며, 연 1-2회(27.4%)나, 현재까지 1-2회(42.9%)하였다는 경우가 대부분

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62.4%)이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표IV-13>참조.

<표 IV-12> 사회참가활동의 참여 빈도

구 분	빈 도	비 율(%)
주 1-2회	36	13.9
월 1-2회	41	15.8
연 1-2회	71	27.4
지금까지 1-2회	111	42.9
계	259	100.0

<표IV-13> 활동의 계속 참가에 대한 태도

구 분	빈 도	비 율(%)
그렇다	164	62.4
그렇지 않다.	99	37.6
계	263	100.0

<표IV-14>사회참가활동 참여 희망 분야

구 분	적극적으로 참가		어느정도 참가		별로 참가하지 않겠다.		전혀 참가하지 않겠다.		계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스포츠 활동	147	50.2	108	36.9	31	10.6	7	2.4	293	100.0	1.65
문화활동	130	44.4	121	41.3	33	11.3	9	3.1	293	100.0	1.73
사회봉사활동	51	17.4	184	62.8	48	16.4	10	3.4	293	100.0	2.06
인간관계 수련 활동	86	29.5	140	47.9	55	18.8	11	3.8	292	100.0	1.97
전통문화 활동	62	21.2	134	45.9	74	25.3	22	7.5	292	100.0	2.19
야외 활동	96	32.8	108	36.9	76	25.9	13	4.4	293	100.0	2.02
과학탐구 활동	52	17.8	113	38.7	89	30.5	38	13.0	292	100.0	2.39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가꾸기 활동	22	7.5	127	43.5	112	38.4	31	10.6	292	100.0	2.53
국제 교류 활동	98	33.4	123	42.0	53	18.1	19	6.5	293	100.0	1.98
취미 활동	190	64.8	92	31.4	8	2.7	3	1.0	293	100.0	1.40
예절 활동	58	19.9	137	46.9	82	28.1	15	5.1	292	100.0	2.18

가장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회참가활동은 취미활동이나 스포츠, 문화활동이었고 과학탐구나 지역 가꾸기 활동에 대한 지원정도는 가장 낮게 나타나서(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1, 어느 정도 참가하겠다=2, 별로 참가하지 않겠다=3, 전혀 참가하지 않겠다=4점으로 계산한 평균점수 비교)고등학생들은 공동체적인 활동보다 개인적인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4>참조.

V. 요약 및 결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핵가족화는 물질만능주의의 가치관을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가치관 및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물들게 되었다(조휘일, 1998 : 92). 게다가 운동 성적에 의해 인간의 값을 결정하는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은 청소년기에 길러 주어야 할 인간다움을 빼앗아 버렸다.

인간다움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사고 및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참가활동은 이러한 인간다움을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교육방법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느끼도록 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가 값지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형성과 사회적 관심이 가장 발달하는 고등학생 시기의 청소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건전한 한 성원으로서 성숙하기 위한 사회참가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학교교육내에서의 사회참가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초석이 되고자 실시하였다.

고등학생들의 의식과 실태를 개인 주변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속에서 몰입하여 주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리고 복잡·다양한 사회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며, 주로 학업이나 장래희망에 대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와 개인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개인중심적인 오락, 스포츠, 패션 등에는 민감한 반면 공동체 활동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심 있는 일에 대한 정보도 주로 개인활동의 영역인 매스컴이나 친구가 주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사회질서를 지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규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자기 식의 삶을 존중하면서 사회전체를 위한 개인의 양보나 헌신은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고등학생들의 의식이나 사회에 대한 태도는 지극히 개인중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사회참가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주로 활동을 시작한 시기가 자원봉사시

간이 의무화된 1995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활동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활동이나 개인생활 중심적인 활동이 많았다. 사회참가활동에 대한 참여의 빈도는 대단히 저조하였지만 계속 활동하고자 하는 태도는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참 고 문 헌

- 권해조. 1987. 『대학생블런티어활동에 관한 실제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김남순. 1997. 사회자원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 학사.
- 김동배외. 1966. “자원봉사활동이 고등학생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제 127호 pp. 34~50
- 김영호. 1996. 자원복지이론과 실제. 서울: 홍익재.
- 김정율. 1985. 아동발달과 교육. 서울: 학문사.
- 김중대. 1998.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제1권 제2호. pp. 103~135.
- _____. 1998. “대학생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비교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제 58집. pp. 365~386.
- _____. 1999.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과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 6집. pp. 19~46.
- 김충기. 1983. 생활지도교육. 서울: 학문사.
- 이봉철. 1991.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 연구 제 2권 제4호. pp. 5~29.
- 장인협외. 1995.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병재. 1988. 사회심리학. 서울: 경문사.
- 조휘일. 1998.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홍익재.
- 한국청소년 개발원. 1994. 청소년활동론. 서울: 인간과 복지.
- _____. 1994. 청소년관계법과 행정. 서울: 인간과 복지.
- 한국청소년 연구원. 1991. 청소년. 서울: 한국청소년 연구원.